

다산 정약용 선생의 답사육 이야기



한양대 국문학과 정민 교수의 ‘삶을 바꾼 만남’이란 책을 읽기 전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애와 현재에 사는 나의 삶을 연결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 책은 다산이 강진에 귀양을 가게 되면서 머나 먼 남도자락의 끝, 강진에서 만난 촌스런 소년, 황상과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생각들이 그림처럼 스쳐 갔다. 과거 250년 전의 먼 옛날 일들이 머리에서 맴돌며 한 번 ‘그 곳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강진에 가서 다산선생과 황상의 발자취를 느껴보자고 생각하고 토요일 아내와 함께 강진으로 무작정 내려갔다.

제일 먼저 다산 선생과 강진의 첫 만남의 장소인 ‘사의제’에서 다산이 좋아하시던 아욱국으로 점심을 하고, 최종 18년이라는 세월동안 제자를 양성하고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흠심서 등 집필을 완성했던 ‘다산초당’을 둘러보고, 책에서 등장하는 승려들과 시를 짓고, 학문을 수련하도록 서로 오갔을 백련사 가는 길을 따라 거닐다 보니 250년이라는 세월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선생의 채취가 느껴져 왔다.

1. 소설 속 역사적 배경

왜 다산은 이곳 강진까지 내려오게 되었을까? 다산이 강진까지 오게 된 사연과 그 역사적 배경을 잠시 정리해 보고 가자.

정조의 관대한 탕평 정책은 천주교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어린 순조가 즉위하지만 정순대비의 섭정으로 이어지면서 서교에 대한 금압령이 선포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유교적 의례를 거부하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다. 이것이 ‘신유박해’이며,



(주)하림 | 조 현 성 이사

이순호, 이가환, 정약용 등 천주교의 진보적 사상가들이 대거 처형되거나 유배된다. 이는 노론 등 집권 세력이 당시 정치적 반대세력인 남인 및 진보사상들을 탄압한 권력 싸움의 일환으로 평가되는 사건이다. 이로 인해 100여명이 처형되고 400여명이 유배되었고, 이 사건에 다산 정약용이 있었다.

2. 다산 황상을 만나다

신유박해로 전남 강진에 유배되는 정약용은 강진 동문 밖 주막 뒤편에 조그만 서당을 열어 시골 아전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며 연명한다. 여기서 만난 소년이 황상이다. 소년은 말한다.

“선생님, 제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너무 둔하고, 둘째, 앞뒤가 막혔으며, 셋째, 답답합니다. 저 같은 아이도 공부할 수 있나요?”

스승은 다음과 같이 답을 한다.

“공부는 너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 둔하면 송곳으로 계속 뚫으면 되고, 막힌 곳은 여름에 농부가 보를 터뜨리듯 하면 성대한 물 흐름을 막을 수 없다. 답답한 것은 꾸준히 연마하면 된다. 나중에 튀어 나온 것은 반질반질 해지고, 반짝 반짝해 빛난다.”

소년은 감격했다. 서울에서 오신 하늘 같은 선생님이 “너도 할 수 있다. 너라야 할 수 있다”고 북돋아 준 한마디가 소년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 이 한번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게 새겼고, 소년의 인생이 변했다.



3. 다산이 아들 학연에게 양계를 말하다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유배되고, 가세는 기울어 남은 가족들은 생계를 잇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한참 학문에 힘써야 할 아들들의 교육도 문제였다. 선생은 강진에서 아들 학연을 직접 교육하며 몇 해를 보냈다. 이때 이런 장면이 나온다. 아들 학연이 생계를 위해 닭을 키워 볼까 아버지에게 넌지시 묻는다.

다. 다산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양계는 좋은 것이다. 양계에도 우아하고 저속하고, 맑고 탁한 차이가 있느니라. 능히 농서를 익히 읽어 좋은 방법을 가려 시험해 보도록 해라. 색깔별로 갈라도 보고 햇대를 다르게도 해 보아라. 번식하는 것이 다른 집 보다 나아야 한다. 또 시를 지어 닭의 전경을 묘사해 보기도 해라. 사물을 사물에 얻는 것이야 말로 독서하는 사람의 양계니라. 이익을 따지고 의리를 못 보거나 기를 줄만 알지 운치를 모르면서 부지런히 애써 골몰하여 이웃 채마밭 노인과 아침저녁 다투는 것은 세 집 사는 마을에 못난이 양계인일 것이다. 이왕 닭을 치려거든 백가서를 가져다가 닭에 관한 내용을 초려해서 계경을 짓도록 해라.”

4. 다산 선생의 양계 철학에 대한 나의 이해

가. 양계의 비전과 사육 방법

[양계는 좋은 것이다. 양계에도 우아하고 저속하고, 맑고 탁한 차이가 있느니라. 능히 농서를 익히 읽어 좋은 방법을 가려 시험해 보도록 해라.]

다산 선생의 글을 현대적 상황으로 해석해 보면, 양계사업의 수익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양계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농서를 읽어 사육 기술을 익혀 사육을 시도하기를 권하고 있다.

나. 번식과 사육 기술

[색깔별로 갈라도 보고 햇대를 다르게도 해 보아라.]

유전자의 개발을 위해 닭의 색깔별로 사육 실험을 해보고 햇대의 높이 등 새로운 사육 방법을 시도하기를 가르치신다.

다. 생산성 및 목표 관리

[번식하는 것이 다른 집 보다 나아야 한다.]

종계 사육을 할 경우 다른 집과 비교하여 좋은 생산성을 기대하는 대목이다. 목표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나침반을 갖고 항해를 하는 것이다.

라. 닭과 문화의 접목

[시를 지어 닭의 전경을 묘사해 보기도 해라.]

항상 다산의 교육 방법은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 하라’ 라는 ‘삼근계’ 를 지키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도 부지런히 노력해서 이를 얻었느니라. 너도 이렇게 하거라” 학 습을 심화하기 위해서는 복사뼈가 세 번 구멍이 나도록 베껴 써보고, 시를 지어 보고 하여 경지에 다다르도록 독려한다.

마. 상생 경영

[사물을 사물에 얻는 것이야 말로 독서하는 사람의 양계니라. 이익을 따지고 의리를 못 보거나 기를 줄만 알지 운치를 모르면서 부지런히 애써 골몰하여 이웃 채마밭 노인과 아침저녁 다 투는 것은 세 집 사는 마을에 못난이 양계인일 것이다.]

현재에도 양계를 하다보면 주변 마을 주민들과 냄새나 소음 등으로 불편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주변 논, 밭작물에 먼지라도 날아간다면 민원이 발생하므로 주변을 살피라는 훈계다.

사. 사육 매뉴얼 편찬

[이왕 닭을 치려거든 백가서를 가져다가 닭에 관한 내용을 초려해서 계경을 짓도록 해라.]
사육 매뉴얼을 보고 닭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닭 키우는 기술을 정립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사용하라.

다산은 ‘당신의 삶에 모든 부분을 공부의 과정과 연결시켜라. 세상에 공부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닭을 키우는 것도 생각하고,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하며, 나만의 사육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연구하면서 닭을 키우기 바란다.

5. 삶을 바꾼 만남



최근 책상을 정리하다가 20여 년간 받은 명함을 정리하다 놀란 점은 정말 내가 많은 사람과 만나서 인사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삶을 바꿀 만큼 극적인 만남이 몇 사람이나 될까 생각하니 부끄러울 따름이다.

작년에 다산 정약용 선생 탄생 250주년을 맞이하여 정약용의 제자인 황상의 자손과 다산의 아들 정학연이 서로의 정과 의리를 지키자고 맺은 ‘정황계’가

250년이 지난 후손들의 만남까지 이어졌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제자의 연으로 만나 정씨와 황 씨 두 집안은 정황계를 맺어 두 집안 부자와 자손의 성명과 자호, 나이를 적고 돈독한 의리를 서술하여 대대로 우의를 이어갈 수 있는 증서교환을 하는 행사였다고 한다.

황상 그는 다산이 아낀 단 한사람의 제자였다. 다산은 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장악했다. 잘하면 속없이 칭찬하고 못하면 매정하게 나무랐다. 다시는 안볼 것 같이 불벼락을 내렸다. 제자는 그것이 속 깊은 스승의 사랑인줄 알고 대뜸 잘못을 고쳤다. 그리고 더욱 분발하려고 노력했다.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관계는 없다. 서로의 정이 겹겹이 쌓여 관계를 만들어 간다. 진심과 성의라야지 다른 공공이가 있으면 중간에 틀어지고 만다. 강진 18년 유배기간 키운 제자는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이들 중 끝까지 스스로를 진심으로 한결같이 섬긴 제자는 황상. 단 한 사람뿐이었다. 